

돈키호테



김양평의
일본 이야기

‘돈키호테’는 다양한 세대 사람들의 단어다. 돈키호테는 워낙 유명해서 영화를 비롯한 다양한 매체에서 재탄생하고 있으며, 노래 가사 속에서도 자주 등장하고 있다. 돈키호테의 영웅하면서도 용감하고 유쾌한 스토리가 사람들의 마음속에서 꺼지지 않는 불꽃과 같이 계속 살아있기 때문일 것이다. 그런데 일본 여행을 준비하는 사람들이 정보를 수집하다 보면 ‘돈키호테’ 방문을 추천하는 글을 자주 접하게 된다. 이게 웬 돈키호테같이 영웅한 소리인지 궁금함도 잠시, 그 내용을 보면 금방 이해할 수 있게 된다. 방문 추천 이유가 “원만한 쇼핑은 돈키호테에서 모두 해결된다.”이기 때문이다. 내가 사고 싶은 물건도, 누군가에게 선물할 물건도 그곳에 전부 있다고 하니 한 번쯤은 들러봐야 할 이유가 충분히 있는 것이다.

일본의 돈키호테는 그 이름이 특이한 것처럼 그 점포에 들어가 보면 ‘재미있는 곳에 왔구나’라는 느낌을 받을 수 있다. 돈키호테 본사인 PPIH의 경영방침이 “고객

에게 두근두근 할 수 있는 체험을 계속 제공한다.”이기 때문에 상품 선별과 진열, POP 등이 다른 소매점들과는 분명히 차별되어 있다. 창업주인 야스다 다카오는 1978년 니시오기쿠보(西荻窪)에서 ‘도독 시장(泥棒市場)’이라는 이름의 소매점을 시작으로 1989년 돈키호테 1호점을 출점한 이후 2004년 100호점, 2013년 200호점으로 성장시켰다. 그리고 2023년 말 기준 일본 전국에 479개, 미국과 아시아 지역에 105개의 점포가 운영되고 있다. 게다가 2023년 6월 기준 매출액이 1조 9,368억 엔으로 최대 매출 기록을 경신했으며, 특히, 34분기 연속으로 수익이 증가하여 코로나 19 영향도 크게 받지 않았다. 이렇게 돈키호테가 성공한 비결이 무엇일까? 단순히 재미가 있어서?

돈키호테 창업자는 시작에서부터 기존의 소매점들과는 다른 전략을 전개했다. 먼저 돈키호테의 전신인 ‘도독상점’은 자정까지 불을 끄지 않고 영업했으며, 현재 유명 관광지이자 주요 지역의 돈키호테는 24시간 영업하고 있어 시간이 부족한 관광객들에게 크게 호응을 얻고 있다. 최근 24시간 영업하는 편의점들에 익숙한 사람들은 그게 무슨 차별된 전략이냐고 할 수 있지만, 당시에는 편의점으로 유명한 세븐일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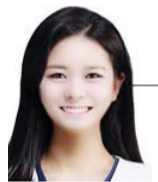
븐조차도 저녁 11시까지 영업하고 있었으며, 전반적으로 심야 영업을 익숙하지 않은 시기였다.

돈키호테의 차별화된 경영전략은 여러 가지 있지만 그중에서도 손꼽히는 특이한 전략은 바로 가맹점이면서도 각 점포에 최대 권한을 넘겨주고 있다는 것이다.

일본의 소매점들은 판매 가격 결정이 자유로운 편이다. 같은 상품도 가맹점 별로 다른 가격에 판매하며 차별화하는 고객을 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하지만, 근거리에는 같은 가맹점은 가격에 차별을 두지 않는다. 그런데 돈키호테는 상품 구색에서부터 가격결정까지 직접 해당 점포에서 모두 결정하기에 근처에 있는 돈키호테에서 같은 제품이 가격 차이가 발생하기도 한다. 가맹점이라는 시스템이 무색할 정도로 점포의 결정권이 크기 때문이다. 그리고 만약에 잘 팔리지 않는 물건이 있으면 매장 회전을 높이기 위해 스스로 판단해서 빠르게 할인 판매하기도 한다. 따라서 근처 돈키호테에서는 정상가에 판매하는 제품이 어느 곳에서는 할인해서 판매하고 있다. 고객들에게는 참으로 반가운 소식이기도 일부러 여러 점포를 순회하며 구경하다가 다른 물품도 구입하게 되는 것이다.

/산업연구원 전문연구원

답은 은행에 없다



나유리
(금융부)

지난달 5대은행의 가계대출이 9조원 넘게 증가했다. 5대은행이 통계치를 작성한 2016년 1월 이후 가장 큰 증가폭이다. 앞서 금융당국이 가계부채를 관리하겠다고 은행을 점검하고, 이같은 압박에 은행들이 금리를 인상했지만 효과가 미미했다는 설명이다. 가계대출이 증가한 이유는 집을 구매하는 소비자의 심리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영향이 가장 크다.

앞서 금융위는 지난 6월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2단계 규제를 예정보다 2개월 미룬 9월에 시행한다고 밝혔다. 당시 가계부채는 부동산 회복 기대감

에 4월 4조 4346억원, 5월 5조 2278억원 증가하며 증가폭이 확대되는 시점이었다.

집을 사려는 사람들은 규제 강화전에 대출을 받기 위해 은행으로 몰렸다. 지금까지 집값 상승을 지켜본 사람들에게 은행이 올리는 금리는 새발의 피에 불과했다. 어떤 자금도 될 수 없었다.

여기에 정부는 지난달 수도권을 중심으로 대규모 주택을 공급하겠다고 했다. 수도권을 중심으로 그린벨트 해제구역 늘리고 공급이 빠른 비아파트를 늘려 집값을 안정화시키겠다는 복안이었다.

그러나 이 계획은 오히려 집값 상승을 더 부추겼다. 오히려 수도권의 개발이 활성화되면서 수도권에 집을 매매하려는 수요는 더욱 늘어난 것이다. 서울을 비롯해 수도권으로 수요가 몰렸고 집값은 고점 대비 95% 가까이 회복한 상태다.

금융당국은 이제야 가계대출규제를 강화하는 모습이다. 스트레스 DSR 2단계 수도권 주담대에는 가산금리를 더해 한도를 낮추겠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같은 규제도 효과를 보기엔 상당기간이 소요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앞서 금융당국은 스트레스 DSR 2단계를 8월 31일까지 매매계약한 차주에 한해서는 적용하지 않기로 했다. 매매계약 이후 1~2개월 시차를 두고 주담대가 이뤄지는 특성상 최대 2개월까지는 가계대출이 증가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가계부채에 대한 답은 이제 은행에 없다. 스트레스 DSR 2단계를 미루고 부동산 정책을 내놓는 동안 은행의 금리는 오르고 한도는 줄었다. 더 이상의 혼란이 생기지 않도록 우선순위를 명확히 해 정책을 내놓을 때다.

/yul115@metrosoul.co.kr

오늘의 운세 9월 3일 (음 8월 1일) http://www.saju4000.com

-  **36년생** 분실 수가 있으니 사람 많은 곳은 주의. **48년생** 지나친 욕심은 좋은 기회를 놓친다. **60년생** 가뭄이 해갈되듯이 일이 풀림. **72년생** 여럿을 위해 중심을 세워 원망 듣지 않도록. **84년생** 버리지도 못하고 정리도 못하는 우유부단함
-  **37년생** 남의 부러움을 사나 오히려 손해를 본다. **49년생** 마음이 울적해도 음주는 주의하도록. **61년생** 노력의 결과가 생각보다 많다. **73년생** 같은 또래 용마의 거래가 순탄하여 서로 이득. **85년생** 사람들이 좋아하면 신명들도 좋아한다.
-  **38년생** 고집을 세우면 식구들도 외면. **50년생** 두 가지가 다 좋을 수는 없으니 하나는 양보해야 한다. **62년생** 유쾌하고 즐거운 일이 넘친다. **74년생** 일이 어려우나 이웃사촌이 도와준다. **86년생** 애경사로 혼을 빼놓은 것 같은 하루이다.
-  **39년생** 믿음을 갖고 기다리면 좋은 결과. **51년생** 꽃보다 아름다운 당신이니 자신감을 가져라. **63년생** 우물을 찾았으나 두레박이 없으니 답답. **75년생** 설계와 디자인 연구를 하도록. **87년생** 욕심으로 재원이 없어지는 상황을 만들지 마라.
-  **40년생** 매화가 피었다고 겨울이 끝난 것은 아니다. **52년생** 업무 관련 약속을 소중히 해야. **64년생** 의견통일이 어려워도 중심을 잡자. **76년생** 부모님의 방문으로 하루가 즐겁다. **88년생** 밤늦게 찾아온 사랑을 방자한 집착에 빠지지 않도록.
-  **41년생** 믿어주는 사람이 많아 감사함. **53년생** 반려견을 키우는 것은 사랑의 마음이 어야 한다. **65년생** 주저하지 말고 적극적으로. **77년생** 남의 단점을 꼭 고집어내면 예상외로 나도 신음. **89년생** 자기가 아름다운 것은 공기도 사랑도 있기에.
-  **42년생** 로또에 되려면 먼저 복권을 사야 하는데. **54년생** 도전할 기회가 오니 놓치지 말고 최선을 다하여라. **66년생** 예술적인 일을 하며 업무의 효율을 높인다. **78년생** 이익 앞에서 유혹이 많은 날이니 자중해야. **90년생** 사랑하되 산뜻하도록.
-  **43년생** 발등을 찍는 것은 밟고 올라선 내 밭. **55년생** 너무 방만하면 위험에 빠지기 쉽다. **67년생** 판단력이 흐려지니 상사에게 공손히. **79년생** 남이 던져주는 희망에 기대어도 좋겠으나 생각하라. **91년생** 사색을 좋아하니 고독함도 즐겁다.
-  **44년생** 자아의 특기를 잘 살피라. **56년생** 계획에 없던 지출이 생기니 과소비를 주의. **68년생** 행복을 얻기 위해 지나친 욕심만 줄이면 기분 좋은 하루. **80년생** 작은 것에 감사한 날. **92년생** 심장에 충격을 주는 심한 운동은 심장마비를 유발.
-  **45년생** 주변 정리로 심리적 안정을 취하라. **57년생** 큰 그림을 그려나 현실은 만만치가 않다. **69년생** 두드려라. 열릴 때가 온다. **81년생** 원활치 못한 처세로 구설수가 있으니 동료와 말조심. **93년생** 단심조만고(丹心照萬古)로 부끄러움이 적다.
-  **46년생** 외출을 자제하고 가족과 지내도록. **58년생** 기다리던 물이 들어오니 노를 저어라. **70년생** 보이지 않는 손톱 밑 작은 가시로 고생. **82년생** 나무에 햇빛이 드는 양상으로 진취적인 기상이다. **94년생** 비워야 채워질 수 있는 평범한 진리.
-  **47년생** 평소 나누는 행동이 작은 허물을 덮어 준다. **59년생** 뜨거운 물 조심. **71년생** 투자와 적신을 구분하고 행동. **83년생** 작은 것에 감사하다 보면 위상이 저절로 커져간다. **95년생** 사랑이란 복잡하고 유기적이어서 딱히 단정하기가 어려우니.



김상회의四季

신비한 돌 ①

장량(張良)에 대해 전설 같은 일화를 보면 유방의 패권을 성취한, 소하(蕭何) 한신(韓信)과 함께 ‘삼걸(三傑)’의 한 명으로 뛰어난 정치가이자 책사 참모의 대명사로 통한다. 사마천(司馬遷)은 사기의 유류세가에서 그를 ‘하늘이 내린 참모’라 평하며 가장 이상적인 책략가로서 고고제인 유방의 모든 결정에 관여한 이로 장량을 꼽았다. ‘사기’에 따르면 장량이 뛰어난 책사로서 자질을 갖추 수 있었던 배경을 설명하는 신비한 돌 이야기가 나온다. 어느 날 장량이 다리를 건너는데 웬 남루한 차림의 노인이 자신의 신발을 다리 밑으로 던지고는 장량더러 주워오라고 했다.

장량은 의아한 가운데 노인의 청이다 보니 주워다 공손하게 바쳤다. 그런데 노인은 한술 더 떠서 자신의 발을 내밀며 신겨달라고 했다. 장량은 순간 이 노인이 보통 사람이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고 이에 공손히 무릎을 꿇고 노인에게 신발을 신기자 노인은 웃으며 그 자리를 떠났다. 그런데 노인은 다시 돌아와 장량에게 가르쳐줄 것이 있으니 님새 뒤 아침에 이곳에서 만나자고 했다. 님새 뒤 아침에 이미 와있었던 노인은 어른과 약속해놓고 늦었다며 핀잔을 주고는 님새 뒤에 다시 오라고 하며 가버렸다. 이런 식으로 장량을 힘들게 하던 노인은 마침내 장량을 칭찬하며 그에게 태공망(太公望)의 병법서를 전해주면서 “13년 뒤에 산기슭에서 내가 마주치게 될 노란 돌이 바로 나다”라고 말하고는 사라졌다 한다. 훗날 장량은 이 예언대로 산에서 노란 돌을 발견했는데 이를 가지고 온 후 유방과의 인연이 생겼다. 후대에도 장량을 능가하는 식견이 없다 했고 권모술수가 판치는 정치판에서도 적을 만들지 않는 지혜를 지녔다. 가보로 여기다가 사후에는 장량의 무덤에 함께 부장되었다고 전해지는 이 돌 이름이 황석공이다.

‘김상회의 사계’에서는 애독자를 위해 전화·방문상담을 해드립니다.
김상회 역학연구원02) 533-8877 / www.saju4000.com

metro 메트로미디어

서울시 종로구 자하문로17길 18. TEL:02)721-9800, FAX:02)730-1551

발행·편집인	이장규	편집국장	김승중
인쇄인		중앙일보(주)	
광고문의 / 독자센터	02)721-9851, 9826 / 02)721-9861		
일간 메트로	서울 가0206 2002년5월28일 제5506호		
일간 메트로경제	서울 가50111 2017년3월09일 제1610호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매일매일 두뇌트레이닝 새책 출간

스도쿠365

문제풀이: 3x3 �도쿠 X는 가로,세로,3x3박스에 1부터 9의 숫자가 대각선 회색 9개에 1부터 9의 숫자가 겹치지 않게 푸는 퍼즐입니다.

문제출제: 손호성
새로운 크리노이드의 알고리즘을 공개합니다
http://www.argo9.com

QR코드
할인도서